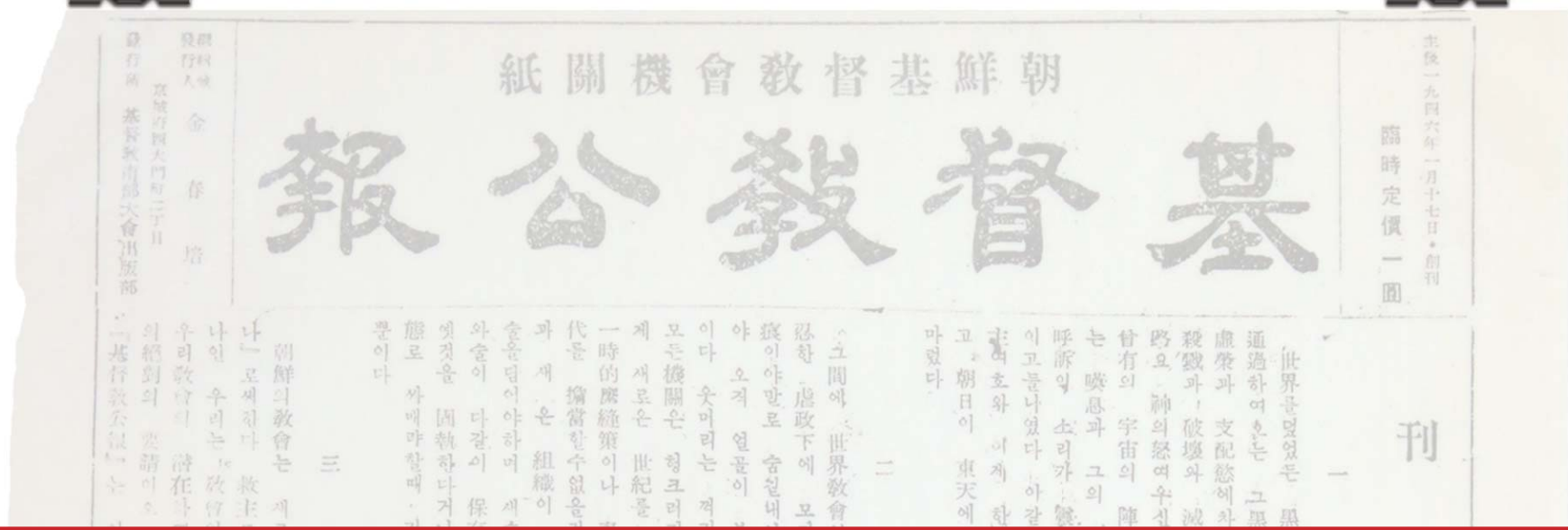


생명을	살리는 신문
평화를	이루는 신문
선교를	이끄는 신문

한국기독교공보는 1946년 창간돼  
72년의 역사를 지닌 총회의 신문입니다.



# 한국기독교공보는 총회의 역사입니다

한국기독교공보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에 동참해 주십시오.

### 주간지 사상 한국 최고의 지령

현존하는 주간지 중 한국최고의 지령을 기록하고 있는 총회의 역사입니다.  
당시 일간지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뿐이었음을 감안하면 한국기독교공보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

### 한국 근현세사 간직한 문화유산

해방 이후 사회상, 제헌의회, 한국전쟁, 피난시절, 산업화, 파독광부와 간호사, 월남파병, 한국교회 부흥, 이단과의 전쟁, 민주화, 남북교류, 교회일치 등 한국 근현세사를 관통하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.

###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 우려

창간호를 비롯한 초창기 신문들은 세월의 풍상으로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.  
**디지털 아카이브란?** 세월에 의해 훼손 우려가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영구적 보존과 검색·공유가 가능하게 하는 사업입니다.

### 구슬도 꿰어야 보배입니다

현재 한국기독교공보는 3만 7천여 쪽의 방대하고 희소한 자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.  
그러나 구슬도 꿰어야 보배입니다.  
이 모든 정보를 복원하고 집적하여 한국기독교공보만의 희귀자료를 모두가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.  
여기에는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됩니다.  
총회의 역사를 복원하고 한국교회 문화유산으로 만드는데 전국교회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요청합니다.